걱정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하지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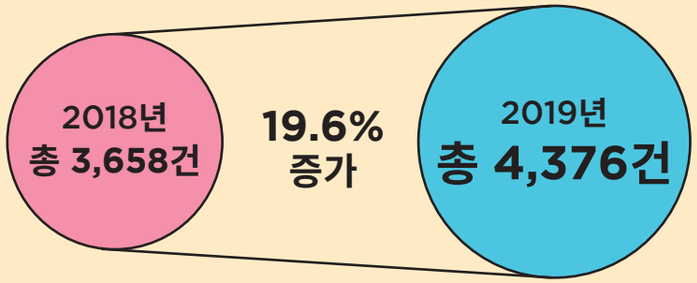
용기있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PEOPLE FIRST SEOUL CENTER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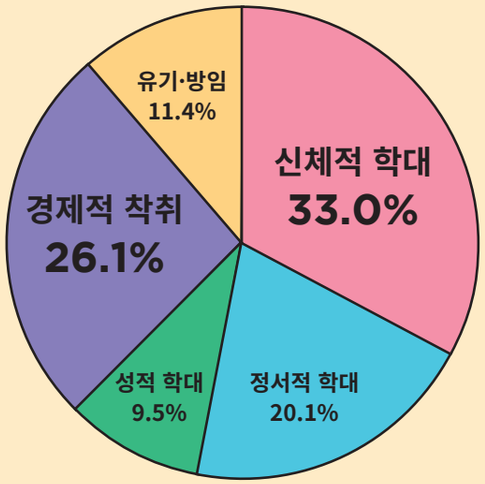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2018년보다
늘어났어요.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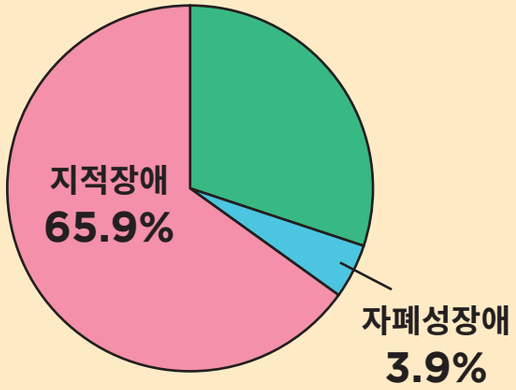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가
많아요.



피해자 특징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인 피해자 4%만
본인이 직접 신고했어요.**



장애인학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정서적 학대
욕설이나 왕따, 무시하기 등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성적 학대
얼굴, 가슴,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여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괴롭히는 것

경제적 착취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 겁을 주거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는 것. 도와주는 척하며 내 돈이나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쓰는 것

유기·방임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건강·음식·위생·청소 등의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01

주원 씨의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은 주원 씨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수첩으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꼬집으며
욕을 했습니다.

02

승준 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 씨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이 씨는 승준 씨가 밥을 먹으며
머리를 흔들자 수저로 승준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콧물을 흘린다고
승준 씨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03

수영 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허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 씨는 수영 씨에게 “XX을 만지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번
넘게 보냈고, 몸을 찍은 사진을
허 씨에게 보내지 않으면
수영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04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서현 씨는 정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서현 씨에게 탁구치는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서현 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몸을 만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발달장애인학대 사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짜 이름입니다.

05

종훈 씨는 채팅앱에서 박 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종훈 씨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종훈 씨에게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만지게 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남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설계사 신 씨는 원석 씨에게 접근해서 5년간 78개의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원석 씨는 보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신 씨가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해야 했고,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석 씨는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냈습니다.

07

휴대폰 가게를 지나가던 현태 씨는 요금을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말에 속은 현태 씨는 휴대폰 2대, 태블릿 피씨 1대, 스마트 워치 1대를 샀고, 매달 50만 원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08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승민 씨는 직원에게 계속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직원들은 승민 씨의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괴롭힘을 당했나요?

현철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성적으로 나를 놀려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동호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가두고 비비탄 총으로 괴롭혔어요. 여러 명이 함께 겁을 주고 돈을 뺏어간 적도 있었어요.

해민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걸레를 입에 물라고 시켰고, 내 돈을 뺏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장애인 반에 다닌다고 놀림을 당했어요.

윤경

직장을 다닐 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일할 것이냐”, “똑바로 하라”고 혼내듯이 말했어요.

진화

시설에 있을 때 학대가 엄청 심했어요. 원장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벌세우고, 밥도 안 줬어요.

대범

중학교 때 반 친구들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슴과 얼굴을 만지며 성추행을 했어요.

✳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해민

그전에는 당하고만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교과서를 다 집어던지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안 괴롭혔어요.

윤경

저는 참다 참다 책으로 친구의 등짝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 뒤에도 저를 놀리긴 했지만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중앙

용기를 내어 괴롭히는 사람과 맞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진화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할 거예요.

가영

112에 신고할 거예요.

중앙

괴롭힘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촬영보다는 녹음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위험할 수 있으니,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물건을 주거나 당신에게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Q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너에게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 “가입하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① 휴대폰을 만든다.

② 나한테만 왜 특별히 잘해주는지 물어본 뒤 ‘나중에 올게요.’라고 이야기한다.

③ ‘괜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한다.

틀린 것

① 휴대폰을 만든다.

맞는 것

② 나한테만 왜 특별히 잘해주는지 물어본 뒤 ‘나중에 올게요.’라고 이야기한다.
③ ‘괜찮아요.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한다.

✳ 이런 상황이 고민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해 봅시다.
믿을 만한 사람에는 가족, 상담센터 직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복지관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지만, 태풍과 같이 위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Q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타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며 “술을 한 잔 사주겠다.”, “커피 한잔하자.”고 합니다.

① ‘좋아요.’ 하고 함께 간다.

② 위험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③ 고민이 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틀린 것

① ‘좋아요.’ 하고 함께 간다.

맞는 것

② 위험할 수 있으니 ‘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③ 고민이 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조심하세요

내가 싫을 때는 “싫어요!” 또는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Q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싫은데 나의 얼굴이나 가슴 등 몸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려 합니다.

① 내 몸을 만지게 둔다.

②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틀린 것

① 내 몸을 만지게 둔다.

맞는 것

②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용기를 내서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어렵다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만약을 대비하여 긴급 전화 방법과 단축 번호 등록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비밀 약속은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몰래 만나거나, 몰래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은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비밀 약속을 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Q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채팅에서 알게 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몰래 만나자고 합니다. 부모님(또는 가족)에게는 말하지 말고 큰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② 몰래 하는 약속은 못 한다고 말한다.

③ 고민이 된다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말한다.

틀린 것

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맞는 것

② 몰래 하는 약속은 못 한다고 말한다.
③ 고민이 된다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말한다.

꿀팁

① 비밀 약속을 한 문자나 페이스북 메세지, 카카오톡, 문자 등이 있다면 지우지 않고 잘 보관합니다.
②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보여줍니다.

✳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조심하세요

잘 모르는 것,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시킬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잘 모르거나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당장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Q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려줄 테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보험 가입 전화를 받게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① 그냥 사인한다.

② 잘 모르겠으니, 관련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곳을 나온다.

③ 거절하기 힘들거나, 장소를 나오기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틀린 것

① 그냥 사인한다.

맞는 것

② 잘 모르겠으니, 관련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곳을 나온다.
③ 거절하기 힘들거나, 장소를 나오기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꿀팁 **보험 가입, 집 계약, 핸드폰 구입 등 계약을 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1644-8295(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하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들어줘요.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와드려요.**

2 **112(경찰)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3 **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인권지킴이단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4 **전화를 하기 어려우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5 **혼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영조

장애인을 괴롭힌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나요?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신고를 못했던 이유

대범

후폭풍이 심해질까 봐.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애들이 괴롭힐까 봐. 신고를 못 했어요.

동호

무서운 친구여서 못 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진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윤경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친구 이야기만 듣고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대범

괴롭히면 선생님이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을 해서 그 뒤로 괴롭힘이 줄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선생님한테 이르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현철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하면 경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헤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1644-8295로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신고를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괴롭힘을 멈출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직접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 조력인, 가족 등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학대에 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학대받은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꼭 맞는 지원을 하고
다시 학대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애인학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합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수도권

중앙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양평동)

서울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 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인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주안동)

경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208호(오목천동)

경기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충청권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37, 2층(모종동)

대전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604호(보람동)

경상권

대구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울산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부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전라권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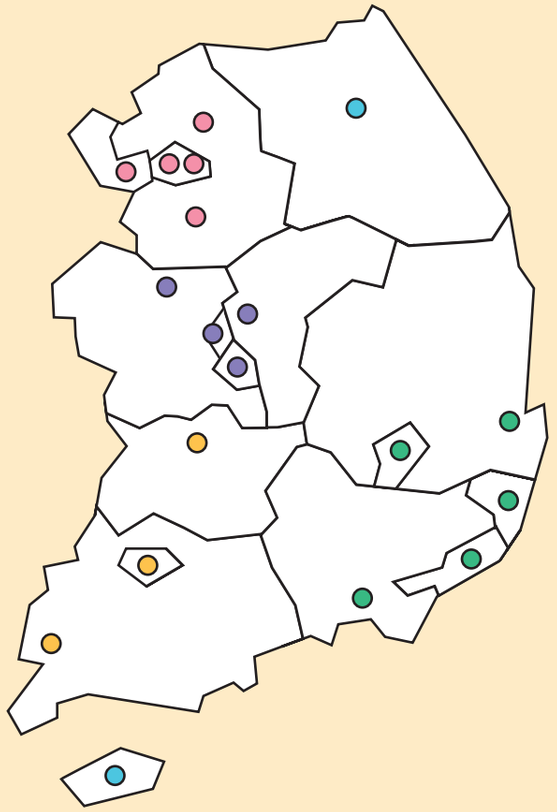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11-10, 경희궁빌딩 5층(효자동)

전남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세븐에이치타워 2층(석현동)

강원·제주

강원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제주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이도이동)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만든 곳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발행인 은종군 **함께 만든 사람** 김대범 · 김동호 · 김현정 · 문혁 · 송효정
경험을 나눈 사람 문윤경 · 박현철 · 배가영 · 유진화 · 임영조 · 정해민
발행일 2020년 9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d.or.kr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9길 13-2, 별관동 3층
전화 02)2068-3554 **누리집** www.peoplefirstsc.or.kr

93330
9 791185 498843
ISBN 979-11-85498-84-3